

# 오바마시 아노 체험민박조합의 활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이유]**  
와카사만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는 소규모 마을인 오바마시 아노는 리아스식 해안을 이용한 물고기 양식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와카사만이 양식의 북방 한계로 알려져 있는 와카사 자주복은 에치젠 대계와 함께 후쿠이현을 대표하는 겨울 음식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아노에는 양식이 포함된 어업과 민박업을 겸한 “어가민박”이 많은데, 직접 키운 다양한 어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1990년대까지는 이용객이 순조롭게 증가했었다. 그러나 레저의 다양화에 따른 해수욕객 감소와 어업 부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후계자 부족 등의 요인이 겹쳐 해마다 민박을 폐업하는 곳이 계속 늘어났다. 원래 민박은 여름철 해수욕과 겨울철 복어 요리를 찾는 손님이 주를 이루고, 봄가을 두 계절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경영효율이 나쁜 업태였다. 이에 이 두 계절에 많이 실시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체험학습(교육여행)에 주목하여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숙박객 증가와 민박 경영의 안정화를 꾀했다.

## [사업 목적]

- “식생활을 중요한 정책의 축으로 삼은 지역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에서 식생활교육을 실천한다.
- 낚시, 생선 손질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일본해(동해)에서 자란 신선한 생선의 참맛을 알고 나아가

생명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다.

- 민박에 숙박하면서 민박 주인, 여주인과 체험한 것에 대해 말하고 일에 대한 매력과 고생담을 함께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진로교육에 일조한다.

## [사업 개요]

체험학습(교육여행)을 시작하면서 2006년에 아노의 민박 13곳으로 구성된 “아노 체험민박조합”을 설립하고 스스로 출자해 이듬해에 낚시터와 생선 손질 시설, 바비큐장으로 구성된 “블루파크 아노”를 정비했다. 블루파크 아노는 ①낚시터에서 도미 잡기, ②그 도미를 스스로 손질하기, ③조리한 도미를 먹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150명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간차를 두면 최대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유사한 체험을 제공하는 곳은 일본 각지에 있으나, 이 정도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많지 않다.



블루파크 아노



바다카약

**[장점, 선진성]**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학교 측의 요구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지역이 단결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학교 측의 신뢰를 얻어냈다. 체험해 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새로 이동한 학교에서 아노를 체험학습(교육여행)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거의 입소문만으로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특필할 만하다. 정부보다도 먼저 식생활을 통한 지역 정비와 식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오바마시는 식생활교육 투어리즘의 콘셉트를 실현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계속 비약하고 있다.

**[사업 효과]**

체험학습(교육여행) 이용자 수는 첫 해인 2007년에 겨우 1개 학교 170명으로 출발했으나, 매년 영업활동에 힘쓴 결과 수많은 여행지와 체험 장소가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증가했다. 특히 바다가 없는 기후현의 중학교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2018년에는 28개 학교 5,107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본래 비수기였던 시기에 새로운 고객 유치를 확립함으로써 민박 경영 안정화와 연중 평준화로 연결시킨 점도 획기적이다. 젊은 세대가 이 사업에 참가해 지역에 머물게 됨으로써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다.



도미 손질1



도미 손질2

**[과제, 문제점과 대응]**

지방 창생의 히든 카드로 “관광”을 내세운 지역 정비가 일본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각지에서 농산어촌 체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아노의 체험학습을 지금보다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유사 체험을 실시하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현지에 뿌리 내린 독자성을 담보해야 한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대의 추세라고도 할 수 있는 인바운드 대응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용 태세를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향후 전개(기대되는 효과와 사업 전망, 과제 등)]**

오바마시는 식생활을 통한 지역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식생활의 바탕인 자연, 역사, 문화 등 오바마의 풍요로운 환경에 감사하는 자세로 앞으로도 체험

메뉴를 더 발전시켜 연간 7,000명의  
체험학습(교육여행) 이용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참고 URL]**

와카사만 “바다의 무대” 블루파크 아노  
<http://bluepark-ano.com/>

**[소관 연락처]**

담당 소속: 오바마시 산업부 상공관광과  
관광진흥그룹

전화번호: +81-770-64-6021

이메일: [kankou@city.obama.fukui.jp](mailto:kankou@city.obama.fukui.jp)